朝鮮日報
夕刊
二十九日(日)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人 方應謨
本社發行定期刊行物
「朝光」(月刊)
「女性」(同)
「少年」(同)

蔣、開封鄭州方面에 十數萬의大軍을集結

開封最前線에는 連日猛烈한激戰展開

商震軍도 此에呼應해 包圍體制로逆襲

總指揮에 第一軍長胡宗南

【北京二十九日發同盟】徐州를 放棄하야 全面的으로 敗退치 아니치못하게된 蔣介石은 汚名을 挽回하고저 開封、鄭州戰線에 大軍을 集結하야 我方에 決戰을 決意하고잇는데 同戰線의 敵兵力은 軍官學校出身의 優秀分子를 基幹으로한 精銳部隊十數萬에 達하야 支那將領中의 勇將이라하는 第一軍長 胡宗南을 總指揮에 任하고 開封前 의 最前線에서는 連日猛烈한 激戰과 이에對한 勇猛果敢한 反擊이 反復되고잇다 蘭封北方 考城方面에엇는 商震軍도 이에呼應하야 包圍體勢를 取하는 同時에 屢次逆襲을 企圖하고잇다 어方面의 戰局의 發展은 자못注目된다 (寫眞은 蔣介石)

社說

金融組合의 利弊

創立三十一週年에際하야

一

今三十日은 金融組合 創立三十一週年이다. 今年三月末現在 金融組合은 都市及 村落을 合하야 七百七十九, 이에 支所 二百十二를 加하야 實로 九百二十四組合員百六十四萬이란 莫大한 機關이다. 그뿐아니라 그 借入金額이 一億一千四百萬圓, 預金이 一億七千九百萬圓, 貸出金이 二億三千三百萬圓이란 數字를 볼 때엔 朝鮮銀行, 殖産銀行에 버금가는 有數한 金融機關임을 알 수 잇다. 金融組合關係者및 監督當局이 그 業績의 好轉을 자랑함도 無理는 아닐것이다.

二

그러나 金融組合이란 一種의 庶民金融機關이오, 自治的 協同組合임에 不拘하고 現在의 金融組合은 組合精神에 不相應한 것이 적지안타. 첫재 組合이란 庶民金融機關인데 이組合員中 小作農及 細民은 幾許를 占領하얏는가. 組合員의 大部分은 農村의 小地主及 自作農과 都市의 中小商工業者及 中産階級으로 網羅되엇다. 둘재 組合은 自治的 精神이 根本이다. 그러나 理事의 任命이 總督의 權限에 屬한것은 勿論, 모든 事務에 道知事 其他 當局의 絶對의 監督下에 잇다. 이것으로보면 金融組合은 組合本來의 精神과는 相距하기가 멀다 안흘수업다.

어바께 都市組合員의 預金을 가지고 村落組合員의 利潤을 먹게되어잇는것이라던지 富者는 多數한 口를 가지고 株式會社에서와가튼 配當을 밧고잇는 點이라던지, 信用貸附가 거어 업는 點이라던지, 償還督促이 酷毒한것이라던지, 貸出에 만흔 手續과 料金을 要하는 點이라던지 組合으로서의 精神을 具備치 못함이 만타.

三

勿論 金融組合이 朝鮮에 貢功勞가 업다는것은 아니다. 高利貸金을 一部 驅逐한것이라던지, 金融的으로 涸渇한 農村을 潤澤케 한것이라던지 共同購入, 共同販賣의 事業을 媒介한것이라던지, 當局의 農村政策에 寄與한 點이라던지 모두 金融組合의 功勞라 할 것이다.

그러나 金融組合에 對한 一般의 期待는 이보다 훨신 더크니 組合員 百六十四萬은 全農家世帶數의 約五個일에 不拘하고 農家가 金融組合을 알기에 내 組合가라 생각치 안코 當局 又는 組合理事者들의 機關인것처럼 생각하는 傾向이 만흠은 遺憾의 消息을 엿볼수잇지 안흔가. 그러므로 今後 金融組合을 發展擴大시키라면 組合數, 預金, 及貸出高의 增加에만 注力할것이아니라 組合이 가질 自治的精神及 庶民金融機關에 가진 內容을 갓게함에 잇다. 卽 組合長以下 理事, 監事, 評議員等의 公選, 組合理事者의 組合員에 對한 貸付, 非組合員預金의 低利, 金利의 低下, 貸出手續의 簡便, 信用貸出의 擴大, 一人所持口數의 極少口로의 制限, 償還督促의 緩和等은 緊急히 改良할 點이다. 監督當局及 金組當局의 慎重한 考慮를 促하는 바이다.

蘭封西北方의 激烈한殲滅戰

【北京二十九日發同盟】二十八日蘭封西北方三義寨陣留口의 逆襲敵의 殲滅戰은 激烈을 極하야 彼我間에 射出하는 砲聲이 殷殷하야 大黃河의 流水도 欲하고 砲身은 灼熱하야 夜間 赤赤한 火焔은 周圍를 비추여 凄壯한 氣는 西部戰線上을 蔽하엿다 敵은 新兵을交替시켜 逆襲하엿는데 我軍은이에對하야 그때마다 猛烈한反擊을 加하야 餘地업시 이를 擊破시켯는데 敵의 損害는 莫大할모양이다

歸德方面敗敵急追中

【北京二十九日發同盟】徐州에뒤이어 東部隴海線의 要衝歸德을 二十八日午前完全히占領한 我軍은 破竹之勢로 敗殘敵을 西方及北方으로 急追中이다

二千五百의 逆襲敵擊退

【北京二十九日發同盟】隴海線西方開封方面에 集結한 十數個師에 及하는敵은 多數를밋고逆襲을反復하야 戰況은激烈을 極하고잇다 二十八日正午頃 約二千五百의 敵은 黃河渡河點陣留口를 目標로逆襲하여왓는데 이에對하야 我軍은猛烈한 反擊을加하야 徹底的打擊을與하야 擊退하엿다 또同日午前一時頃三義寨로向하야 東三方으로부터 三十五師를主力으로한 有力敵部隊가 逆襲하여 왓스나 我○○部隊가 出擊하야 이를驅逐하야 多大한 損害를與하야 擊退하엿다

空陸兩軍呼應 歸德及一帶地區攻略

【東京電話同盟】大本營陸軍部發表(二十九日午前十時五十分)敵을西方으로 急追하는 我部隊는五月二十八日早曉로부터 空陸呼應하야 歸德에依據한 敵을東北、東南及南北方面으로 包圍攻擊하야 午前七時二十分 歸德及그一帶地區를 攻略하엿다

체코首相호자氏 헨라인黨首와再會見

【프라하二十八日發同盟】즈데텐獨逸黨領袖헨라인氏는二十八日午前체코首相호자氏와 會見一時間餘에亘하야 즈데텐派의 交涉繼續問題에對하야 協議를遂하엿다 그結果二十三日一回行할뿐으로 中止케된 호자首相과 헨라인黨首와의 會談은 近近再開하게되리 意見이 一致된 模樣이다

즈데텐黨要求提示와 아바스通信報道

【伯林二十八日發同盟】즈데텐獨逸黨首헨라인氏는 來週中에 체코政府에 對하야체코國內獨逸人居住地域의 行政自治要求에 對하야 그範圍及 條件을 提示할意向이라는데 아바스通信伯林支局은 二十八日獨逸政府는즈데텐黨의 要求提示에압서 헨라인黨首에 對하야 態度를緩和하도록하라고 左와如히報道하엿다 獨逸政府는 헨라인黨首가 체코政府에 要求內容을 提示함에當하야도 極力穩健한態度를 取하라고 慫慂하게될것이다 獨逸政府는 今回의 事件에依하야 獨逸各紙는 盛히 反체코의 論陣을펴고잇스나 獨逸政府로서는 此際 어대까지던지 체코와의 紛爭을 回避할 意向이므로 英國의 調停을 利用하려하고잇고 또 英國其他列國으로하여금 獨逸의 實力을 認識케하야 相當한 讓步를 하게하려하고잇스며 現在에잇서서 積極的으로 아니될 事態를 惹起함을 避하고 結局 체코政府에 蘇聯邦과의相互援助關係를 淸算하도록 側面으로 壓迫을 加하야 歐洲로부터 蘇聯派의 勢力을 驅逐하는데잇다는 印象을주게하도록 努力할것이다

北支中支兩會社 有力한總裁候補

吉野前商相、十河信二氏等

【東京電話同盟】我大陸經營의先驅인 北支開發中支振興 兩會社의 設立準備는 兩設立委員長을爲始하야 池田前藏相 特別委員長 兼武部委員長補助等이 主되여 第一第二特別委員會를連日開催하고 審議한 結果 兩會社의 定款設立 및 事業計劃書, 收支計算書의 作成決定을 終了하고 今後政府出資財産의 評價와 株式募集方法等을 審議決定하려는데 今次內閣改造에 依하야 初代總裁에 內閣에 池田第二特別委員長을 보내고 또 賀屋、吉野 兩前大臣이 更迭되엿스므로 政府로써는 池田成彬氏의 後任을 補充하는同時에 中支會社總裁等도 다시考慮치 안흘수업는 狀態로되엿다 政府로서는 兩會社를 豫定대로 六月一日을 期하야 設立시키려하는 同時에 準備를進行하야 이를 目標로 總裁의 人選을 急히하고잇는데 北支會社의 總裁에 對하야는 去六日近衛首相으로부터 鄕誠之助男을 設立委員長에 就任을 正式으로 懇請하엿는데 鄕男은 考慮한後 返答하다고言約하엿슴에 또中支會社의 總裁에 對하야는 池田成彬氏의 出馬를 期待하고잇섯스나 鄕男은 健康上及 諸種事情으로부터 또池田氏는 藏相兼商相就任으로 모두 總裁就任이困難하게되엿스므로 政府로써는 鄕男으로부터 拒絶回答을바더 兩會社總裁再詮考케되엿다 그러나그境遇北支會社總裁는 識見經歷手腕等으로보아 最適任者인 吉野前商相을推하는者가잇서서 中支會社總裁에는 興中公司社長 十河信二氏及 日銀副總裁津島壽一氏가有力하게되엿다 (寫眞은 吉野氏와 十河氏)

不戰條約을遵守하는 米外交方針依然不動

調印當時同樣으로締約國拘束

헐長官二十八日聲明

헐國務長官

【華府二十八日發同盟】헐國務長官은 二十八日米國의 外交政策에關하야 重要聲明을發表하야 米國의 不戰條約遵守方針이 不動하다고 言明하엿는데 聲明要旨는如左하다

中歐諸國의 情勢는 目下危機的段階에 達하엿는데 米國政府는 最近重大關心으로써 此等事態의 推移를 注視하여왓다 約十年前米國政府의 國策의 結果로서 戰爭放棄를 規定한巴里條約에 調印하엿는데 舊約은調印當時와 同樣으로 今日에잇서서도 勿論拘束力이有하야 一切締約國을拘束하는것이다 世界의어느地方에 發生한戰事行爲이라하더라도 國際情勢에 豫測을 不許하는結果를 招致하야 一般的權益의 永久的國益을 與하는 因子를 在하고 또一切國家에 不測의 國家와하게 平和와 正義와 進步의 事實임으로에對하야 我等은 못보게할수업다 米國民은 他一切國家와 同樣으로 安固恒久的狀態를 希求하고 또는 國家間에 紛爭이어느곳에 存在하더라도 또는 그紛爭이 如何한것이라하드라도 어디까지던지平和가 維持될것을希求하는바이다

發表後의헐長官談

【華盛頓二十八日發同盟】헐國務長官은 二十八日米國政府의 不戰條約堅持方針을 聲明한後 新聞記者團에對하야 今回聲明은 不戰條約締約國과는 無關係의 米國政府獨自的行動으로 米國外交政策에 對하야 誤解가잇지안토록 不戰原則을거듭强調한것이다 그리고 헐長官은 今回聲明의 主旨를如左히말하엿다 伊에戰爭勃發直前에도 同樣의聲明을 發表한일이잇다

獨逸人軍事顧問 四十名撤回決定

國民政府大打擊

【紐育二十八日發同盟】在支獨逸人軍事顧問四十名撤回決定은 國民政府當局에 非常한衝擊을 與한模樣인데 二十八日紐育에 達한 AP漢口電報에依하면 蔣介石은 파르켄하우젠將軍과 會見하고 顧問撤回에依한 招聘契約解除問題에 對하야 會談하엿다 但 問題는 解決하지못하야 今後國民政府가 트라우트만 獨逸大使와의間에 折衝하게될模樣이다

타스通信記者等 十數名行方不明

【紐育二十八日發同盟】二十八日紐育에達한 AP漢口特報에依하면 徐州會戰에際하야 支那軍에從軍한 蘇聯의타스通信社記者크로빈스키는 徐州가陷落되여 敗走하는 支那軍으로부터 떠러저 行方不明으로되여 生死가念慮되는데 크로빈스키의 通譯을하고잇든 支那婦人一名及 著名의新聞記者十數名도 同樣行方不明으로되엿다傳한다

東條中將新京行

【東京電話同盟】去二十六日歸京한 東條英機中將은 陸軍首腦部와 要談을 하고잇든바 二十九日午前七時羽田空港發 新京으로 赴하엿다

西政府英佛의抗議

【巴里二十八日發同盟】西班牙人民戰線政府는 프랑코空軍의 空爆問題에 對하야 英佛兩國의 態度를 詰難한 抗議通牒을 二十八日英佛兩國外務省에 提出하엿는데 同通牒要旨는 如左하다

프랑코空軍이 無防備都市아리칸테를 空爆하엿는바 英佛兩國政府는 去二月無防備都市空爆中止의 要請을行하얏스나 市에對한 空爆은 避하고잇슴에不拘 英佛兩國政府는 이러한 暴擧를 默認할뿐 가튼 態度를 取하는 遺憾千萬이다 西班牙政府는 英佛兩國政府가 今後 아리칸테空爆과如한 暴擧를 阻止하기爲하야 適切한 處置를 取하기를要望한다

프랑코軍活躍 바르세로나空襲

【발렌시아二十八日發同盟】프랑코軍飛行機는 二十八日早曉人民戰線의 首都바르셀로나를空襲하야 爆彈多數를投下하엿다 프랑코軍空軍은 同時에人民戰線의首都바르셀로나에對하야도 空襲을敢行하엿는데 人民戰線軍의反擊에遭遇되어 避退하엿다

【테루엘(西班牙)二十八日發同盟】프랑코軍이 바르셀로나 발렌시아間의 連絡을 切斷한以來 着着戰果를 擧하엿는데 一方프랑코軍은 二十八日마침내 人民戰線軍의 要衝을 占據하는데 成功하엿는데 余勢를몰라 마침내 발렌시아方面에 進擊을開始하엿다

新外相人事行政

巨物次官을起用乎

宇垣新外相就任에 際하야 今後의 帝國外交의 動向은 內外의注目을集中하고잇는데 一方新外相의 政治的手腕이 風評만흔 微妙한 外務省人事에 如何히 處理할가는 帝國外交今後의發展上 重大한 要素가 될것으로 새로히 外交事務의 中樞인 外務次官의 人選如何가 注目의 的이되여잇다 그리고 目下形便으로는 中堅을 取하는 新外相의 從來의 方針으로보아서 아마 現狀維持를 取하다가 適當한 機會에 中正한 人事異動을 行할것으로 보는것과 時局의 緊迫에 鑑하야 英斷으로써 새로 相當한 斧鉞을 加할것으로 보는 두가지見解가잇스나 이것은 對支中央機關의 再次具體化하기前에 部內의 人事刷新을 斷行할것으로보고 그때에 次官候補의 下馬評에오르는者는 大物次官의 來栖駐白大使、齋藤駐米大使等이엇다 一方從來의 人事異動은 順序로 考慮하면 前駐西班牙公使 少壯派의 强硬한 支持를 밧고잇는 白鳥前瑞典公使起用說도 注目된다 (寫眞은 宇垣外相)

大谷拓相三十日渡滿

【東京電話同盟】大谷拓相은 三十日午前七時羽田發空路로 渡滿 滿洲各地를 視察하고 朝鮮地方의 事情을 聽取하고 六月十二日 羽田着 歸京할豫定이다

世界週史

近衛內閣改造斷行

近衛首相은 最近政局의 打開策으로 內閣改造를 斷行하기로決定하고 諸工作을 進行하고잇든바 去廿六日 마침내 內閣改造를 斷行하엿는데 外相에 宇垣一成大將, 藏相兼商相에 池田成彬氏, 文相에 荒木貞夫大將, 厚生相에 木戶幸一侯爵이 各其就任하야 新內閣이成立되엿다

隴海戰線

徐州陷落後의 我軍은 隴海線上의 要衝을 向하야 追擊을 繼續하고 北上軍의 壓力과 南下軍의 急迫으로 徐州는 完全히 我軍에 占領되여 戰史上一大戰局이 終結되엿다 二十一日 蕭縣에서 敗走하는 敵을 追擊하야 歸德 蘭封方面으로 進擊中이다

獨체國境紛爭

체코슬로바키아의 地方選擧가 切迫하는 同時에 체코國內에서는 各處에서 獨逸人과 체코官憲과의 衝突事件이 頻發하엿는데 二十一日 에게르에서 獨逸人二名이 체코官憲에 射殺된事件이 發生하야 一時 獨체間의 緊張이 高潮되엿스나 英佛兩國의 斡旋으로 아즉 解決되지못한中에잇다

本社參觀

◀咸南道洪原郡龍源公立尋常小學校生徒七十四名 引率者 張翰稷氏

八面錄

◇新任藏相의 抱負는 輸出原料品의 輸入을 緩和하고 生活必需品의 物價를 抑制하겟다고.

◇程度의 問題려니와 幾分만이라도 緩和시킨다면 經濟苦에 허덕이는 民衆에의 一淸涼劑.

◇地方公吏들에게 昇給、增給의 朗報.

◇何必 下級公吏랴, 給料生活者가 다 渴求하는 形便.

◇金融組合에서는 三十一週年을 마지하야 그業績의 長足發展을 자랑하는듯.

◇組合은 貸出高、預金高의 만흔것만이 長技가 아니다.

◇眞正한 自治精神、庶民金融機關으로써의 資格을 具備해야한다.

◇現在 金融組合에 自治、庶民의 標語를 내세울 根據가 잇는가.

◇今後의改良、發展點은此處.

日曜氣配

▲期米 物貨抑制를 豫想하면서 長期季節前의 變質念願整理後라하야 腰保合氣配不變

▲株式 新政策期待로 買方躊躇하나 小康氣配不變

大新 　東新 　鐘紡 　滿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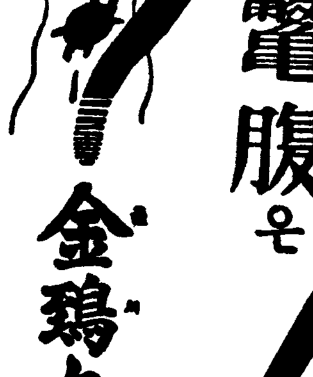
▲綿絲 不變

今日本紙四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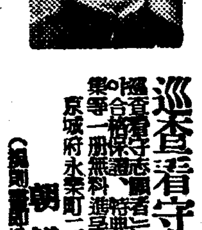
補血·强壯·强精·特效劑
판토크린
(血精茸鹿花)
新綠이方濃한初夏에는 補藥으로서 花鹿茸精血(판토크린)을먹어야한다 花鹿茸精血을 먹지안코는 天下에 補藥이잇다고 말하지못할것이다、效力의 絶對한것도 絶對한것이아니라 百藥이 騰貴品切하는 이때에 元定價 그대로 無盡低廉하게 提供하는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京城·鍾路·元町·八番·四輪·直
共生藥業株式會社
電話光化門局 二五四七番
振替京城 二二〇〇二番
定價 內服液 30cc入 ¥7.50 注射液 1cc.5管入 ¥9.00

醫學博士 三浦良雄
內臟外科 一般外科 肛門外科 レントゲン科
三浦外科
入院病室完備
京城府黃金町八〇 電話 本局(2)一八四八番(病院) 本局(2)七二七五番(自宅)

5月30日→6月5日
松竹大船超特作 皇軍大捷の歌 朝日新聞八選歌
永遠の感激
監督 佐々木康
主演 佐分利信 高峰三枝子
M·G·M社特作 監督 ジョージ·B·サイツ
13番目の椅子
朝日·讀賣·パテー·發聲·ニュース 映畫
松竹京都特作
いろは系図
明治座



瘧疾(학질)과 鼈腹(자라배)은 金鷄丸으로全快
頑固한여름의 感氣에도特效
尤先! 三十錠짜리를 試用하시라
樂天堂製藥株式會社



巡査看守(講義錄)
朝鮮警務學會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番地

한個한個먹을수록이상하게도기운이나는맛난菓子
一個五錢
京城府南大門通
豊國製菓株式會社謹製

物價奔騰에 反撥된 各方面의 增俸運動
주름살못펴는「쌜라리맨」대중
膠着俸給에 快消息

각종물가는 천정을 모르고올라가기만하야 "쌜라리맨"을볶이는이때 너무가혹다는 생각으로 차츰차츰 각방면에서 증급증봉(增給增俸)의 기운이 농후하야 "쌜라리맨"의 도시인 경성에도 일맥의 명랑한공기가 떠돌고잇다 총독부와 경성상공회의소 조사에의한 물가지수(指數)로보더래도 현재그대로잇고 또는내린것은 십분의일도 못되는상태로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불가결인 목욕갑, 이발갑, 오락비등도 일제히 인상하얏다 이와가티물가가 등귀된오늘날 "쌜라리맨"에게 증급증봉의 기운이오는것은 당연한 현상인데 이에대응하여 개관이래 이미일년반을 경과한 부내 영화전당(映畵殿堂)명치좌(明治座)는 그후더욱순조로운업적으로 압도적인기의 중심이되어잇는데 동관에서도 종업원의 우대방법에 대하야 여러가지로 고려를 거듭한결과 물가등귀가 격심한오늘날 증급은 불가피한 사정이라는견지에서 지난오월일일부터종업원오십여명에게 일제히일할의증급을단행하얏다 영화관의증급은 이것이처음으로 흥행가의조흔경기를반영하는 명랑한화제로서 각방면의 주목을끌고잇다

그리고 조선운송회사(朝鮮運送會社)에서는 사원증급에 대하야일직이간부회에서 협의하야 이미방침을결정하얏는데 동사에서 솔선하야 증급을단행할에는 다소 고려되는점도 잇스므로 재계각 제회사 은행의 눈치를보고잇는현상이다 그리하야 그실시시기는아직 미정이나 동사의이번 상반기업적은 자못양호하야 전기보다 이만원의 순이익증가를 보고잇는 형편일뿐아니라 사원우대문제는 동사 촌상(村上)사장이하 각수뇌부의 의견이 일치하므로 불원간 증급의실현을 보게될것은 분명한사실이다

全南各地도水亂!
慶全西部線·木浦↑↓光州·長城↑↓靈光 順天↑↓光州汽車、自動車線路總不通
河川氾濫로農作物被害莫大

【全南支社電話】 이십칠일 새벽부터 전남일대에 퍼붓든 폭우는 이십팔일 일시날이개엿지만 동일 저녁때부터 다시퍼붓기시작하여 아직도계속되고잇다 이십구일 오전열시까지의 우량은 백오십여『미리』로서 경전서부선(慶全西部線) 순천(順天)려수(麗水)간 기차는불통되엿고 또목포(木浦) 광주(光州)간 장성(長城)령광(靈光)간 순천광주간의 자동차선로는 모두두절되엿다 그리고도영산강(榮山江)과극락강(極樂江)룡강(龍江)등의 중수로 연안일대에는 탁류가도도히범람하야 농작물의피해도 막대할모양이다

밧파다가보니 으앗! 피스돌
동둑이케캐하게쓰러

【咸南支社發】 텃밧을 파다가실탄이잇는권총을 파낸괴사건— 갑산군갑산면동부리(甲山郡甲山面東部里) 김봉래(金鳳來)(三七)는 지난 이십삼일오후세시 쯤그집뒷산밧을 경작하려 파다가 의외에도 약다섯치되는 땅미테서 녹이쓸은 권총한자루를 어더보앗다 권총은발견서 수십년래에땅에파무처잇든것으로추측하며 이십륙년식이라고한다

鐵材大窃盜團送局

【咸南支社發】 철까고시대의 부산물을먹는 절도단의 일당송국— 함흥경찰서에서 엄중취조를 밧고잇든 허유의 절도범 박춘성(朴春成)(二三)등 섭명은 이십팔일 절도 장물 고매 아보(牙保)등 죄명으로 함흥법원검사국에 송치되엿는데 그들은 작년시월부터 일단이되야가지고서 함주군을 도라다니면서 이천여원어치의 철물을도적하야 고물상에 파라먹엇다한다

萬餘圓橫領한 共犯木浦서逮捕

【慶南支社發】 부내 본정이정목 포목도매상 곡직상점(谷直商店)상품출납계정원 리경상(李慶相)이 유곽의창기와 정이들어 그의친구 김모(金某)와 공모한후 전기상점의 상품을 일만수천여원을 횡령하고 전부와 만주방면으로 도망하려다가 부산서에 체포되엿다함은 기보한 바이어니와 그공범인 초량정(草梁町) 김형칠(金亨七)(二三)(假名)이 그기미를알고 도주하엿스므로 부산서에서는 각서에 수배중이든바 이십팔일오후두시경에 전남목포(木浦)서에 체포되엿스므로 부산서 소일향(小日向)형사부장외 오형사가 목포로 출장하기로되엿다는데 사건의 이면에는 어떠한 마수가 잠재하여잇는듯하므로 사건의진전이 자못주목되는바이다

人夫一名急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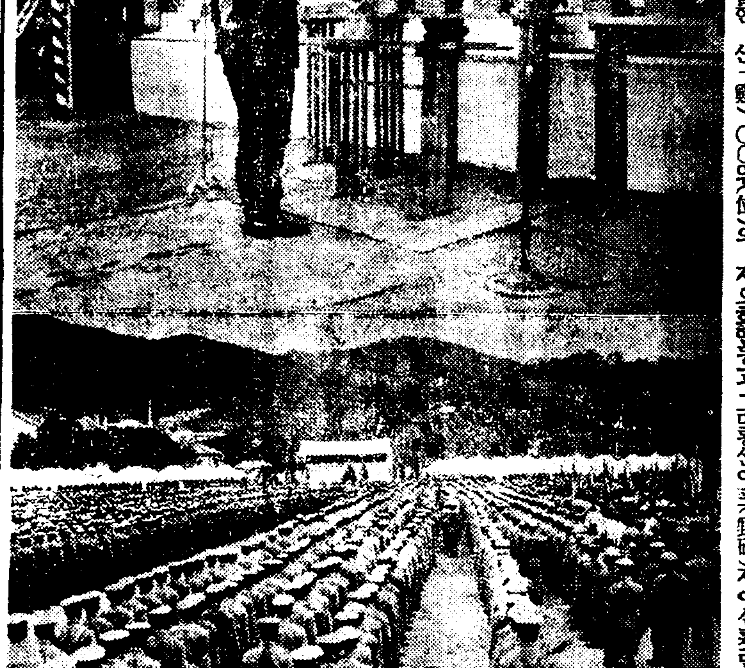
【慶南支社發】 이십칠일 오전열시이십분경 부산부내 목도(牧島)『굴크』회사부근 바다파제에서 작업중이든 부내 소화통(昭和通) 호전조(戶田組)소유의 범선이전복되여 작업중이든 인부 영선정이백팔번지 김영하(金永夏)(四三)외두명이 바다에떠러저두명은 헤엄처서나오고 전기김영하는익사하엿다고한다

過勞로殺人
自働車運轉手失手

과로(過勞)로인하여 사람을치어죽인 자동차운전수— 부내종로 삼정목 오성(五星)자동차회사운전수최용식(崔龍植)(二二)은 이십팔일 이른새벽 자동차(경구천백칠십이호)를몰고 비나리는구십리길을 경안(京安)까지 손님을실어다주고 곡도로 피곤해서드리오던길에 아침여덟시 삼십분경 뚝섬(纛島)과 망장리(廣壯里)갈닙길에 다다럿슬지음길을 가로건느려는 행인한명이 잇스물보고 놀라서 차를멈추려하엿스나때는 이미느저 전기행인에게 머리와기타전신에 중상을입혓다는데 중상을입은 행인은곳 그길로 대학병원소천(小川)외과에 입원 응급치료를 가하엿스나 머리의 상처가 치명상이여서 뇌출혈로 오후한시에 절명되엿다한다

漂浪갈매기를 넉달만에發見

【淸津電話】 지난일월에 녹아도(鹿兒島)를 떠난갈매기가 넉달만에 북조선에서 붓잡혓다는 진기한이야기— 이십칠일 오후네시쯤해서 림겸(林兼)상점소유의 운반선(運搬船)이 청진(淸津)등대압바다를항해중 그물때목에 발이 걸녀고생하고잇는 갈매기 한마리가 잇슴으로 배를 멈추고 붓잡엇더니 다리에 『소화십삼년일월이십삼일지포지정우노기』(志布志町ウノキ)라는 글자를 새인 알미늄으로만든 가락지가 끼어잇섯다는데 『지포지정』은 녹아도현 대우(大隅)지방 동중해안에잇는 항구의 이름이라고하니 이갈매기는 아마거게서 누가 풀어노흔것이 남쪽끄테서 북쪽끄트로전후넉달동안이나 날러온것으로추측된다고한다. 바다의 표랑아(漂浪兒) 문제의 갈매기군은 방금 청진림겸(林兼)상점에서 보호를밧고잇다.



第五回英靈合同告別式
今日·壯嚴裡에執行
南總督以下五千餘名이參席

북지산서(山西)전선에서용감히 싸우다가 명예의 전사를한 산근중좌(山根中佐)이하 영령(英靈)○○위(位)의 제오회합동고별식은 이십구일 오전열시반부터 룡산야포(野砲)제이십륙련대영정에서 신식(神式)으로 엄숙히집행되엿다 이날참렬자는 유족들을 비롯하야 남총독이하 각관청단체학교기타 군부측으로부터 오천여명에 달하엿다 식은 먼저 례에따라 수발(修祓) 초신식(招神式)을비롯하야 제주(齋主)심택중장(深澤中將)의 제문봉독이 잇슨후이어서 남총독과 소기(小磯)군사령관 대독과 좌백(佐伯)경성부윤으로부터각기조사(弔詞)를 봉독하엿다 그리고내외각지로부터온 조전피로가잇섯스며 다음으로 제주 관계부대장(部隊長)유족대표참렬자중 중요각단체대표들의 옥관봉전(玉串奉奠)이 잇섯다 그다음으로 의장병(儀仗兵)의 경례와 조총제발(弔銃齋發)이 잇슨다음 위원장 판본중좌(坂本中佐)로부터 일동에게대하야 정중한 인사가 잇섯다 그리고서 식은 오전열한시오십오분에 엄숙히 마치엿다

(사진은 영령합동고별식장광경)

時局對策의原案
來月上旬頃에는成案·
37項目中卄餘項目決定

장기화하는 전시체제에 대처할 조선의중요지위를 강조하며 사변하 조선의제반시책(時策)을 확립하려는 총독부내의 시국대책준비위원회(時局對策準備委員會)는 사명의성질상 급속히그 구체안을 수립하지안흐면 안될것으로 각도지사회의를 비롯하야 각종중요회의가 잇슬때마다 분과회의를 열고 그입안을 촉진하야왓는데 그연구대상항목삼십칠항중 이십수항은 이미성안을어더서 대야정무총감(大野政務總監)에게까지 제출되엿스므로 나머지것도 급속히제출하기로되여 오는유월오일까지 전부원안을 제출하기로되엿다 그리하야 이원안은 소화십일년가을에 개최하엿든 산업경제조사회의 원안과가튼 형식으로 정리수집하야 총독부시국대책준비위원회기본안으로서 다시종합준비위원회에서 수정한후 본위원회를개최하게되는것이다

李甲成氏 大邱서被檢

【慶北支社發】 삼십삼인사건의한사람이든 경성부 아현정(阿峴町) 리갑성(李甲成)(五〇)씨는거년십이월에 모중사건으로 경북경찰부에 검거되엿다가 지난사월에무사석방되엿든바 기간대구에체류중 지난이십륙일 경성서대문서의 지휘로 또검속되엿다고한다

色鉛筆

장안거리에 비가나리면 요지음 새로생긴장관 가지가잇스니 너도나도 할것업시 젊은녀자들의「레인코ー트」의 범람이다 ▲빤드로 허리춤을 묵거 맵씨잇는 경장(輕裝)은 바로출정하는 장사들의 무장가티도 야무저보인다 ▲젊은녀자가 이러케들우장을하고나설때는 안가고는 못배길 자기의 직장(職場)이나 급한볼일아니고 그러케 몸치장을하고 비오는거리로 밧부게나설까닭이업슬것이다 ▲이런 류행의 범람되여잇는 녀인부대는거의가 비오는날 심심푸리영화관을 찻는패가아니면 레인코ー트를 입기위한 우중산보(雨中散步)가 목적인 모양 ▲일인족새벽밥을 지어먹고 전차도안타고 십리식되는길을 비를마즈며 거리로 제사공장이나 연초공장으로 출근하는 그녀성들에게 꼭필요한 우장이것만!

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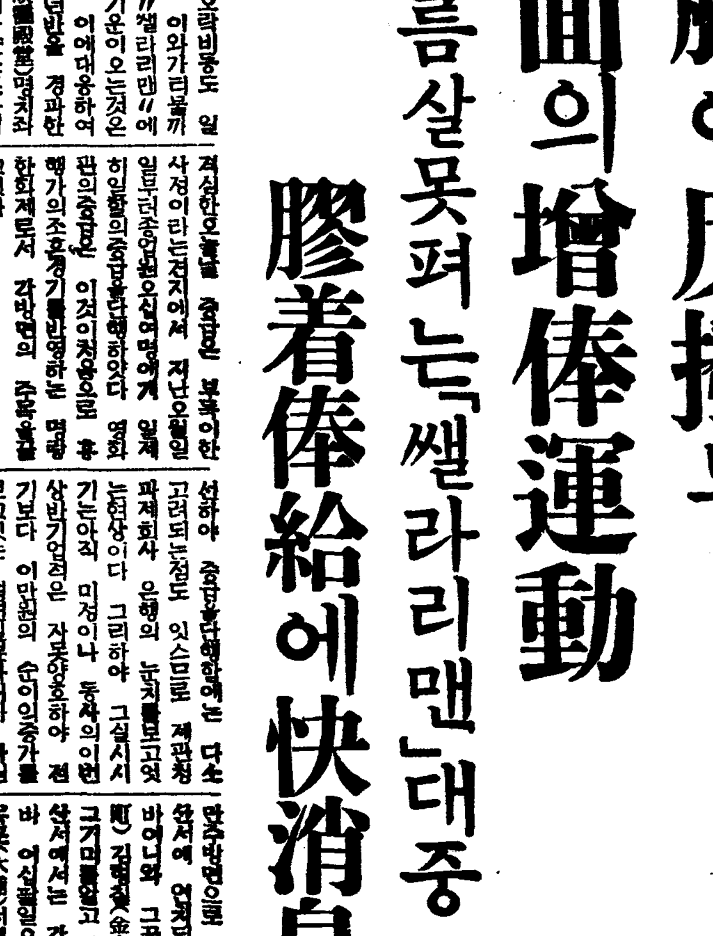
▲五月三十日(月曜) 陰五月二日 ▲干支 壬戌 ▲日出 五時十五分 ▲日入 十九時四十七分 ▲日南中 十二時三十分四十五秒 ▲滿潮(仁川) 四時三十二分 ▲日出 五時四十七分 ▲月入 二十時三十二分 ▲滿潮(仁川) 五時三十五分과 十七時四十五分

慰勞金萬圓밧고 住民讓步로解決
馬洞淺野"쎄멘트"工場煤煙問題

【沙里院支局電話】 황해도봉산군 토성면마동(鳳山郡土城面馬洞)에 잇는 천야(淺野)쎄멘트회사 공장에서 나리는 끄림으로말미암아 그곳 주민들에게 피해가만타하야 쌍방간에 큰충돌이 생겨서 마침내 수십명이 사리원경찰서에 검속을 당하기까지하야 세상에큰충동을 이르컷는데 이십구일오전에 쌍방이서로만나서 원만히해결을지엇다 즉이날오전열시부터마동주민대표륙십삼명은 봉산군수 사리원서장 급기자단의참석아래 『쎄멘트』회사회의실에서 그회사당무자와 만나서회사측으로부터 一、일년에 오천원식으로하야 이년분의보상금으로 한꺼번에 현금만원을 내여노코 二、방연장치(防煙裝置)는 연말까지 완성하기로하고 三、도로와하천과 제방은 잇는대로 속히수리하야 농작물에 해가업도록하기로하다 그리고 그회사서무주임 고교(高橋)씨로부터 현금만원을 봉산군수에게 건너주어서 그것을 다시토성면장에게 전하엿다 그돈은주민들에게 공평히 분배하기로되엿다 그리고도 주민대표측에서 검속된사람중 남어지세명도 곳석방해주기를 요망하엿든바 서장도 잘처리하겟다고 대답하엿다 마지막으로 쎄멘트회사전무는 아프로는 주민들과 친목을 도모하야 서로 도아가기를 바란다는 희망을말하고 영시반에 무사히 산회하엿다 이와가티 조건을부처서 원만한 해결을 지은뒤에 주민대표방치(方致)씨는 감사의 인사를하고 봉산군수는 그동안서로 미안하엿다고 인사하고 사리원서장은 지난십구일에 주민들을 만히 검속한것은 부득이한사정으로 눈물을먹음고서 한것이니 양해하여달라고 변명의인사를 하엿다 또 그회사 전(田)전무는 약속한 조건은 가급적 속히실행할것인데 우선방연장치는 내월까지 하겟다고 언명하엿다

江물向해投身瞬間
鐵柱에걸려慘死
漢江鐵橋에珍自殺屍

한강철교를 진행하는 열차속에서 강우에투신자살을 하려다 철교기둥에부듸처서 두골이 깨지기 기둥새에끼여 죽사한 자살사건에 보기드믄 일이 이십구일오전팔시반 경에 잇섯는데 소지품으로미루어보면 인부갈둑 으로잇서는것가트며 주머니에 이흥태(李興太)란도장이 잇고이십팔일에 발행한 안양(安養)용산간의차표를 가지고잇서 이십팔일야행열차에서 투신한것가트나 시체가철교우에 보이지안는곳에 잇섯슴으로 아무도 모르고 잇다가 이십구일 오전팔시 사십분 용산역(龍山驛)발 수원(水原)행 열차가 철교를 지나갈제승객인 노량진(鷺梁津)사는 철도국 노덕성(盧德成)이가 발견하고 소관용산서에 보고한것이라한다 그리고 근지와 자살원인은 조사중이다



男子中等學年別陸上競技大會光景

스포ー츠欄
京畿道內中等校 學年別陸上競技

京畿道陸上競技協會主催의 第二回京畿道男子中等學校學年別對抗陸上競技大會는 豫定과가티二十九日午前九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 京師、仁商、徽文、養正、仁中、京工、景中、昭工、普成、景中、培材、中央、龍中等의 十三個校各學年代表選手六百名(監督員)의 入場式에 뒤이어 昨年度優勝校(一學年)養正中學(二學年)培材中學(三、四學年)京畿中學(五學年)培材中學、昭和工科(?)等의 優勝旗返還、支那出征軍人을爲하야 一分間默禱를하고 大會長谷本一氏로부터 開會辭가잇섯스며 이어 競技를開始하야 一分間默禱는 擧行하는英靈告別式의 十時半에는 一分間默禱를行한다음 百米레ー스로부터 競技는 行하엿는바 當日各校의 戰況은 다음과갓다

第一學年 [illegible]

第二學年 [illegible]

第三學年 [illegible]

第四學年 [illegible]

第五學年 [illegible]

安井盃爭奪 庭球戰績

朝鮮軟式庭球聯盟主催의 第二回安井盃爭奪全朝鮮庭球選手權大會는 二十九日午前九時半부터 京城運動場코ー트에서 五十六組가 參加하야 開始된바 夕刊마감까지의 戰況은 다음과갓다

◇第一回戰 [illegible]

明日의運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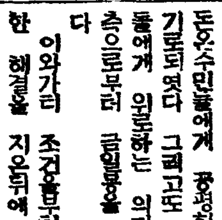
▲籠球＝第二回大學高專籠球大會決勝…延專對普專 午後五時 東崇町大學籠球場(雨天時에는 淸涼里町大陸室內코ー트使用) ▲蹴球＝大學高專蹴球리ー그…大學豫科對延專 午後五時 延專球場(觀覽無料)

今夜의라듸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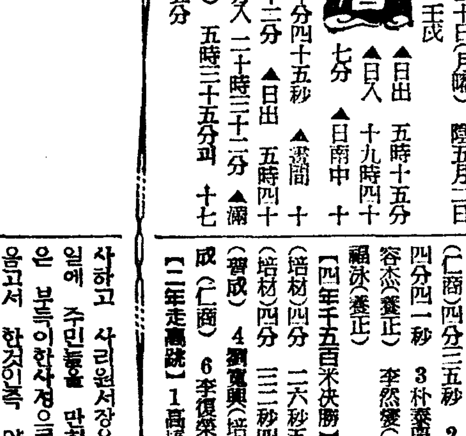
第二放送 午後六時 노래공부(一) 金喜貞 ▲六時二五分 修養講話 金秉濬 ▲七時三〇分 唱劇調 宋萬甲 韓成俊 ▲八時 歌謠曲 李銀波 오케、째스밴드 ▲八時三〇分 野談 申鼎言 ▲九時 쟤즈 郭正淳 ▲一〇時一〇分 國語講座 ▲第一放送 ▲午後六時(東)物價 ▲七時三〇分(大)日曜演藝 ▲八時一〇分(東)歌謠曲 ▲九時一〇分

東亞 참기름 開城西本町 東亞製油所

祝伏 朝鮮文學全集 短篇集(上) 三版發賣中

急告 빈대

이십갑 삼오원원 지방송료 삼십오전
빈대로고통을밧는분은 경성서대문 신기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대과학의최신발명이라 빈대까지아조멸종된다 인제는밤잠을 편히주무시게되엿슴니다
경성서대문 신기신성당
電話光三三四、三四九九番 振替口座京城四九五〇番

絹綿布直輸入貿易商 時勢表進呈
京城鍾路三丁目 東順德 電話光化門③ 一六三八番 一六三九番 一六四〇番 振替口座京城 一四九一番

精力强進劑 蔘茸トニク

藥價 五圓 二圓八十錢
精力減退의人! 早老衰弱의人! 에게 蔘茸トニク는 唯一한蘇活劑로서定評이잇슴니다 本劑는 配合이完全한 故로 身體內部로부터 精力을增强시키며 精力減退、神經衰弱、病後衰弱、肺結核、貧血症、早老等等으로 悲觀하는人에게 顯著한 强精効果가 有한것은 實驗에依하야 明白합니다
(全國各地有名藥局及百貨店藥品部에서販賣함)
製造發賣元 京城鍾路三丁目 慈善堂製藥株式會社
賣捌元 京城本町四丁目 株式會社 木村藥房
代理店 東京 大木合名會社 大阪 株式會社 高橋盛大堂
見本並=說明書 無代進呈

眼科 耳鼻咽喉科 (專門) 南山醫院 醫師 金致丸 平壤府巡營里 (入院室完備)

高級 アイスケーキ 機械 돈버리의王 一夏의利益五千圓 新品、中古品(新品同樣品有함) 製造營業秘法傳授 釜山府大廳町通り 朝鮮冷凍工業所 電話五六一番

結核 患者의每年發生이 400.000名式

最近當局의發表한바에依하면 朝鮮內에每年發生하는 結核患者數는 40萬이란實로可恐할數라고하며 이로因한死亡者는 近五萬에達한다고합니다。

이와가티 激增하여가는結核病은 一日이라도速히 適當한豫防의方途를取하여 驅逐하지안흐면더욱蔓延하여 여러분의保健에 絕大한威脅을줄것입니다。

結核이란것은 그病菌이空氣中에 散在하여 身體의抵抗力이減退되고 粘膜이弱하게될때에 侵入하여發生하는病이므로 平素에榮養을充實히하고各器官을補强하여서 病菌에 對한抵抗力을强하게하면 何等의念慮가업습니다。

世界的强壯劑네오톤(NEOTONE) 은體內에榮養을供給하고 肺·胃·腎·神經을 强化하는 同時에 食慾을增進하고 體重을增加하여全身의抵抗力을 强化할뿐아니라 結核菌을殺滅하는 有効成分이含有되여잇스므로 病弱體 健康體를不問하고 이可恐할結核豫防或은 治療에 가장有効한 强壯劑입니다。

(本劑를服用하실때는먼저醫師에게問議하여주십시요)

適應症 肺結核·神經衰弱·萎黃病·貧血症·腺病質·食慾不振·肋膜炎 産前産後·急慢性氣管支加答兒·一般虛弱·榮養障碍·心臟疾患·病後恢復期

包裝 小中大 全國有名藥店販賣

네오톤元發賣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大連、上海

浸水家屋三百餘戶 田畓被害도莫大

交通杜絶이十四個處等等

慶南暴雨被害詳報

【慶南支社發】 지난이십칠일밤부터 경남일대를 습래한폭우(暴雨)는 각처에 피해가만타고함은 기보한바인데 이십팔일오후다섯시까지에 각지경찰서로부터 경남도경찰부에 보고된피해를보면 가옥도괴이호 침수가옥삼백이십오호 그중 마루우까지침수된것이 사십오호이고 제방붕괴 사개소 교통두절십사개소 그중 철도이개소 논(畓)침수 이백정보 밧(田)침수 오십정보 부상자 일명등이며 이외에 농작물특히 보리(麥)피해는 아직알수업스나 상당한 피해를 당케되엿다고하는데 이십팔일오후팔시까지도 비가 그치지안코 계속하고잇서 불안중에잇다고한다 그리고자동차교통두절된개소는 다음과갓다

釜山—彥陽間　釜山—東萊間
釜山—下端間　梁山—龜浦間
梁山—彥陽間　馬山—統營間
東萊—梁山間　海雲台—機張間
東萊郡北面—東萊西面
釜山—多大間

釜山府內 被害狀況

【慶南支社發】 지난이십칠일밤부터 경남일대에폭우가 습래하야 부산부내에는 침수가옥이 약이백호에 달한다고함은 기보한바인데 이제그상세한것을 적어보면 이십칠일오후 삼시반경부터 비가오기시작하더니 점점우량이 증가되여 이십팔일오전 두시경부터 폭우가쏘다지게되여 동일오전열시까지에 약일백미리 동일오후 다섯시까지에는 약일백오십미리의비가 쏘다저서 부내대신정(大新町)곡정(谷町)수정정(水晶町)구서면(舊西面)등지의하수구(下水溝)가 범람되여 마루우까지침수된호수가 삽시호기라 침수가일백칠십오호에달하야 총계이백호나되여 대소동을이루고잇고 또대창정(大倉町)사정목에잇는 전중청이(田中清二)이층집이 도괴되엿는데 전중씨의처 번자(繁子)(三〇)와 동거인 유산호(大山葉)의 둘째딸 국자(國子)(六)는명이 도궤된집미테 깔린것을 어옷사람과 소방조원 청년단원등이 출동하야 구조한결과 번자는기적적으로 경상도당하지안코 국자만이 전치약일주일을 요할경상을 당하얏다고한다 그리고 침수가옥의 각정별은다음과갓다

水晶町七〇戶　佐川町一〇戶
凡一町一五戶　本町　一〇戶
瀛州町一五戶　大倉町一〇戶
谷町　二〇戶　大新町二〇戶
中島町一〇戶　草梁町一〇戶
土城町　五戶　富城町　五戶

咸南의苹果大凶

開花期長期旱魃等關係로 七八割減收를豫想

【咸南支社發】 함남도안변(安邊) 함주(咸州)지방의 주요산물인평과(苹果)는 작년도의 미증유의 풍작에비하야 금년은 그성적이 극히불량하야 홍옥(紅玉)가튼것은작년에비하야 칠할 왜금(倭錦)도팔할 국광(國光)도이할수를 예상하리만큼 대흉을 면치못할것이라고한다 이것은 금년개화기(開花期)에잇서서 몹시 가물엇스며 또개화일수가 퍽지리하게되여 결실상태도 극히 조치못하게되엿다고한다

忠南號獻納式

六月下旬으로延期

【大田】 애국기충남호는 오는유월십이일 헌납식을거행할 예정이엿는데 사정에의하야 유월하순경으로 연기되엿다는바 회장은 대전부 춘일정 목척운동장(大田府春日町木尺運動場)이라고 한다

綏化同胞村大火

二十餘戶가全燒로 數多災民極히困境

【奉天】 지난 십일일 오전열한시경 빈강성수화현(濱江省綏化縣) 조선인부락에서 발화하야 이십여호가 소실되엿는데 인명에는 별관계가업스나 당지금융회리사(金融會理事) 리공우(李公雨)씨의 부인이 화상(火傷)을당하엿다고한다 그리고손해는 약 만원이라하며 발화원인은 방금조사중이다 이의외의 재난을당한 이십여호의 가족들은 방금 노숙을하고잇서 실로그들의 구제책은 긴급을요하게되엿다고한다

保聖校理事會서 設立者一人增員

【宣川】 선천 보성여학교(保聖女學校)결산(決算)이사회는 이십사일 오전십시 남예리(南禮理)교회 사 객실에서 회집하야 순서에의지하야 원만히 의사를진행시켯는데 특히 개생후의 약전보성교의 현세와 장래에 비추어보아 설립자 한사람만으로는무엇으로 보든지 부족한편이 만흐므로 현재설립자외에 조선사람측으로 설립자한분을 택하기로하고 금후적당한인물을 물색하기로 하엿다는데 이로써 보성교의 기초는 확립된셈이다

善 李鎭能 林興鎬 李聖鳳 李用武 金今山 金文秀 安成模 金東澔 李在午

志願兵合格者

忠南서廿四名

【大田】 지난 이십사、오양일간 충남도청 제일회의실에서 조선인지원병전형시험을 지원자유십오명에대하야 실시하엿든바 이십팔일 다음과가티 발표하엿다

金聖信 洪國煥 金成培 朴東信 朴鎭李 李喜燮 崔鳳林 姜榮煥 李相淳 金寶値 徐秉斗 鄭俊海 殷基燮 崔福萬 尹福

玄俊鎬氏特志

千圓獻金

【全南支社發】 지나사변돌발이래 국방헌금으로 수차에나누어 약 일만여원을 헌납한 호남은행두취현준호(玄俊鎬)씨는 이십삼일에 또다시 헌금일천원을 광주헌병대에주어 출정군인원호금으로써 헌납하엿다한다

鎭南浦택시統制

不遠新會社創立

【鎭南浦】 진남포부내 택시업자들이 合선하야 당국의방침에따라 통제안에 찬성하엿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진남포경찰서에서는방금준비에 크게분망중 어십사일

問題의第二人道橋 電車專用橋로飜案

西電援助로五十萬圓工費豫算

平壤府에서銳意研究

【平南支社發】 평양특히구시가에서볼때 반드시가첫서야 할것이라고 고창하여온 대동강의제이인도교는 그러나 해마다무지개가리사라저 버리곤하엿다。국고보조불능인에 의한예산부족 전시의재정긴축 수난등이 그이유다。그리나 발전과대된 평양으로보아서 그것은이이상 미룰위나갈수없는것이라하여 평양부에서는 철제가 될는지 "콩크리ㅡ트"、계류바ㅡ식"에 의하여서라도 명년도에는반드시이것을 실현시키고 연구중이라는것이 한번 발표되자 부민들은 어떤에야 말로 이것이 형소리가 되지안키를 크게 기대하엿섯는데 "계류바ㅡ"식에 의하여도 역시상당한 적재가필요하다하야 결국이것의 가능성도 박약하다는소리가 들려오게되엿다。그리하여 부에서는 제이인도교대신에 전차만이 통행할수잇는 간략한다리를 서선전기회사의 원조를어더 오십만원가량의 경비로 가설하리라는안을 세우고연구중이라는데 총독부에서도그것을 ... 가장 가능성잇는 안이라는말을 하고잇다。

이다리가 생기면 현인도교의 전차선로가 철거되므로 그다리는 의교통행인의 번잡이완화될것은 사실이고 그러한것이라도 생기면 나이대동교만인하여 반드시가오면 장애에로 밀리어간다면 이것은 평양시민의 『다리』롱의하는 것이라하야 평양의 문화、산업전을 위하여 크게 생각할문제라하야 구시가주민들은 크게 기대하고잇다한다

大同江에養殖

鯉魚五萬尾를

【平南支社發】 장연일면 용흥수(良城一面榕水)의평양대동강손으로 너시적으로운동장으로로 ... 무두동가역행거니와변파가운데에는 이어(鯉)부어(鮒)소가리뱅어(白魚)자개등 해일수업을 정도의어류가 서식하고잇서 어심만 ... 루를대동강에 방어하기로 되여진 ... 평남도수산계(水產係)에서 치어(稚魚)의 ... 해양어장(鎭海養魚場)에의뢰하여 ... 턴바 일조오륙분의치어 오만미가 근일도착하기로 되엿스므로 적당한장소에 방어하게되엿고명년삼월에는 삼백만립(粒)의 이란(鯉卵)을 강중에헤치어 부화번식(孵化繁殖)도하기로되엿다

平壤府立圖書館에 鑛業研究室特設

【平南支社發】 산금증산국책에순응하여 평양부립도서관에서는 석전(石田)관장의 발의로 광업연구실(鑛業研究室)을 특별히만들

林巨正【109】

長篇小說

洪碧初 作　金能超 畫

소굴 (七十七)

홍진사 주장중은 랑선만코 인원하야 남이 주는건 밧지안는일이 업고 남이 달라는건 주어본적이 업는 사람인데 상목열필을 꺽정이에게 뺏기고 앗가워서 가슴이 쓰리고 분해서 켜가 떨리엇다 꺽정이의 가는곳을 알어서 포청에 고발하라고 꺽정이가 절에서 나간뒤에 홍진사 대중(大衆)이 몰려오든지 또는 좌우포청이 쏘다저오든지 꺽정이는 조금도 겁날것이 업섯스나 소소한일로 아메 큰일에 방해를 끼치지아니하라고 조심조심하야 장수원으로 가는 뒤를 밟지못하도록 일행여러사람을 먼저보내고 자기가 올때도 곳장 오지안코 동소문밧 삼선평길로 멀리돌아와섯다 주장중의 보내놋든 한이 한동안 허덕지덕 꺽정이뒤를 밟아오다가 중간에서떨어저서 다리를 쉬어가지고 천천이 절로 돌아가서 그사람이 동소문안에 들어간뒤 어듸로새엇든지 아무리 차저보아도 눈에 보이지안터라고 주장중에게 말하야 주장중은 즉시 상좌를 포청에드려보내서 꺽정이가 도당을만히 거느리고 절에나와서 상목십여필을 빼서가지고 동소문안으로 들어왓다고 고발하게 하엿다 좌포청으로 우포청을일시 겸대(兼帶)하고잇는 김순고가 좌포청에서 홍천사중의 고발을밧고 우포청 포교들까지한께내노하서 꺽정이의 종적을염탐(廉探)시키엇다 좌우포청 포교들이 성안 성밧그로 가욋중차대동하엿다。

길막봉이가 바늘티 정상갑이 집에 와안저서 상갑이의 짝패 최판돌이까지 청해다노코 장수원애 대장파 두령면사람이 모혀서 무슨일을 경영하는데 의외로 사람이 만히 들게되어서 갓가운데로 청병하러왓스니 사람을 만히 모하가지고 장수원으로 가자고 말한즉 최판돌이는 그저 좋음만하고잇고 정상갑이는 영을 알라고 여러가지로 캐어물엇다 구변업는 길막봉이가 한참 꾸중거리다가 일은 가보면 알테니 미리 묻지말라고 막찔러서 정상갑이가더 뭇지는 못하나 진기나 나지안는 모양이엇다。

『어떠케할테가』

길막봉이 다두처 뭇는말에 정상갑이는

『글세요』

하고 대답한뒤

『자네 어떠커면 조켓나』

하고 최판돌이를 돌아보앗다。

『우리만사람을 청석골대장이 쓰실데잇다구 오라시는데 안갈수잇나』

『물론이오지 길두령 낫을 봘드래두 안가될수는 업지만 번번저못한공론을 들아가지구가서 일을 잘못해서 낭패될지 켜드리면 우려가 되려 대안스럽지안흔가』

『일은 잘못하든때두 못이나만히 논아줍시사구 말슴하세그려』

『그런 뻔뻔스런소리는 자네나 하게 좌우간 가긴 가야할테니 내일 아침밥을 일즉 먹구 이리 모이라구 밥에 좀 아다니며 일러두세』

정상갑이는 길막봉이 대접할다고 가지안코 최판돌이만 혼자 돌아다니며 일러서 이튼날 아침에 바늘티로 모하드린 사람이 겨우 한 사십명되엇다 사람수가 적어서 길막봉이는 맘에 좀 시원치못하나 최판돌이 말이 울안한사람은 거아 다잇다고 하는 것을 더 모하오라고 할수업서서 그대로 다리고오는데 삼십여명이 성군작당(成群作黨)하야 한데몰려오는것은 불긴하므로 셋식 넷식 따로 떨어저 오게하얏다 길막봉이가 정상갑이 최판돌이와가치 맨아페 오는중에 홍제원 조금못미처서 정상갑이와 최판돌이의 잘아는 젊은사람 하나를 만낫다 정상갑이가 먼저

『자네 오래간만일세 언제 버리터에 나가나』

젊은사람이 미처 대답도하기전에 최판돌이가 역담어서

『요새 버리 조흔가』

하고 물엇다 이 젊은사람의 버리터는 룩번어고개요 버리는 단지행인의 봇따리와 주머니를 털는것이엇다

『그동안에 두분어 다 저승행차하신줄 알엇드니 사자가 아직두 모시러 오지안헛구려』

젊은사람 룩답이사에 정상갑이가 우스면서

『이놈아 악담 말아』

하고 꾸지젓다。

『두분 다 녕마한신터에 혜음녕가리 되구 가파른 고개를 하루 몃번식 올으나리시자면 줌들이 자실테지요 내 버리짜리를 박권드리리까』

『오 네가 혜음령이 욕심이 나서 우리가 죽기를 바라는모양이다만 녹번이서 산불이나 파머어라』

各地端午노리

谷山 곡산에 ... 오(端午)명절을 마지하여 ... 사에 의하야 ...

橫美 ... 一等百圓 二等五十圓 三等二十五圓 四等十圓 ...

回効散 ← 頭痛 齒痛에 — 効力迅速에 評判잇는 回効散은 學術的에도 非常히 잘듯는다고해서 近來어느藥店에서도 굉장히 잘팔린다고 합니다 論보다證據 試用해보시요 本舖 東京 大阪 森田製藥所 全國藥店에잇슴

百日咳에 コデステ 먹기조코 効果一等 定價二十錢부터 (藥店에잇읍니다)

地球는돈다 빅타ー 익살과농청이 新流行된 코메듸 쑝! 李圭南 他 이아고나요맹꽁 朴丹馬

朝報案內 讓店 特殊事業有利府內目抜ノ場所附屬國ノ為至急讓ル 本人直接來談ノ事 本局二七四〇
犬病院은 東四軒町二八 交番所前上ル (電話③四、二六番)
家具 京城府本町二丁目(交番所) 家具製作直賣 佐伯家具店 電話本局②二三七四番
アイスケーキ機 キャンデー 大カモト門 オシキ 冷凍機販賣 (カタログ進呈) 小松電氣商會出張所 平壤府瑞町 電話一二八一番 代理店募集
監督所長招聘 (月給制) 扣當地方 鎭南浦以外 新義州 江界 ... 出張以上大會社經驗者 ... 昭和生命保險 ...

잘문질러두면 발이달이 두르시니까 저절로 애하야 짐 습신수충 음부 세ー니 藥價 三十錢 五十錢 一円 大阪市南久太郎町堺筋 竹村製劑所 各藥店에잇슴

醫學博士 西野入直澄氏御推奬 富士胃腸藥 胃腸病으로苦痛하는분은最後的으로服用하라! 漢藥과洋藥과科學的으로結合케한高貴胃腸藥으로서如何한胃腸病이든지症狀에맛는最後的으로服用하시라! 定價 金十五錢 一圓 二圓 參圓五十錢 (京城生藥化研究所製) 富士屋藥局 元賣發 京城南大門通一ノ一四 電話本局⑦四七六番

OKEH 高福壽傑作集 12125 朗讀 尹德均 오케ー레코ー드

昭和의常識 ... 萬人共知 姜南月……! 東洋唯一 觀相師 新運의開拓은姜南月先生에 (姜南月先生) 京城府本町大百八十七番地 姜南月觀相所 ... 疲勞가금방팔팔하게 元氣를더하는…… 仁丹

特約 配給所募集 メッソリン 메쓰링 淋病 消渴 特效劑 ... 京城府漢江通三 電話龍山三八五番 振替京城二七二九四番 ... 各出資程度 ◇特約店—三十圓으로百圓까지 ◇代理店—百圓으로二百圓까지 ◇配給所—二百圓以上 ◉申込規定 一、資格 二、出資額決定 三、營業場所 四、履歷等을詳細通知하시면社員을派遣하겟슴니다 ◎特典 ... ●特製出征常備藥指定販賣所 京城 三中井百貨店 和信百貨店 丁子屋百貨店 平田百貨店 永登浦藥房 山本商店 鳳凰堂藥房 三中井支店 ... 小資本經營案內 釜山府大橋通一丁目六五 本報慶南支社 電話二八九七番

日本産業最高賞綠綬褒章御下賜 猪印のみとり粉 蚤、虱、南京虫の成虫、幼虫、卵まで全滅する猪印 安住かとり線香 カトール 本舖 安住大藥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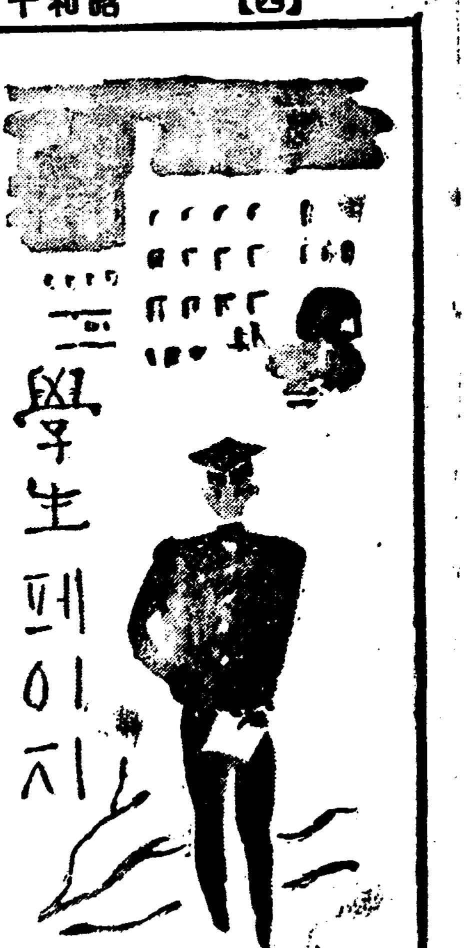
藥用구레ー무 アモンパパヤ 여드름·죽은깨·기미·엽섬 여드름자리와흉터를남기지안코 ... パパヤ洗粉 藥用인故로洗顔이滋味로운 ○アモンパパヤ一號 一圓五十錢 ○アモンパパヤ二號(强度) 二圓 ○パパヤ洗粉 四十錢 送料는各各三個까지十錢 ... 東京市神田區 本舖 株式會社 杉田商店

輕便洋服收納器と自動開閉洋服覆器 一個宛ダンボール函入折疊式 輕便洋服收納器 長三尺六寸 大特價一個 二圓九十錢 (三個付 掛) 自動開閉洋服覆器 大特價一個 四圓五十錢 特製別珍ブック 五圓二十錢 寸法 カタログ無代進呈 特約店大募集 名古屋市中區老松町 伊藤利商店 振替名古屋一〇三〇七七番 電話中三九六番

小兒健胃整腸劑 베ー비ー散 (全鮮藥店에잇슴 品切일때는直接發賣元에注文해주십시요) 藥價 三包入 三十錢 五包入 五十錢 九包入 九十錢 十二包入 壹圓 發賣元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株式會社 新井藥房

三十日밤부터 東洋劇場에서 ▲豪華船上演劇▼ 宋影作 純情無邊 三幕五場 晝間映畫의 幕間에 —豪華幕間— 夜間演劇 ... 六月三日밤까지中央公演合同公演 ... (1)짜스밴드 (2)아라비아댄스 (3)아크로빠틱 ... 晝間映畫(特別週間) 二十八日낫부터 料金階上卅錢階下廿錢 골렴비아社兩大名畫 或る夜の出來事 意氣な紐育子 東洋劇場

六月一日부터 府民館에서 每夜七時正刻開演?? 青春座 豪華船 競演大會 三日間 二日間 青春座上演藝題……林仙圭作 사랑에속고돈에울고 前後篇同時上演 劇團豪華船上演藝題……李瑞求作 어머니의힘 三幕五場 東洋劇場



(靜)(夜)(思)(感) 死의本能

世專 李達浩

고요한夜半에 허미한燈照미테 안기여『잘까잘까』하는 時刻소리를 睡魔에 向하는 羊의발자욱 소리로듯는사람은 누구나할것어시 人間도 亦是이『잘까잘까』에 依하여 死에갓자워진다고 一種의 恐怖心을 느낄것이다. 特히病床에서 呻吟하는不正常의心身의 所有者인 患者는더욱 그럴것이다.

大體醫學上으로는 中樞神經系統과 呼吸及心臟機能의 停止가 即『死』이다. 매우 簡單한現象이 아닌가? 事實 두려지안흘어『死』가 웨그리도 人間에게 不安의마음을주는가?

그러데 生을希求하는것이 人間의 本能이것가티 死도亦是不知中에 우리들의 本能이란것을 生覺하고저한다.

醫死 心理學的 觀察에서보면 所謂『不老長壽』는 古來, 洋의東西를 莫論하고 人間의 最大理想의 하나이다. 그리고 生의本能은 承認하되死의本能이란점에도想像키어려우며特히常識的으로는 到底히 理解하기 困難한것이엇다 그러나人間은 한번은꽉죽을것이라는 萬古不變의眞理가 이지안는가? 따라서 永遠한生이란 希望할수업으며 또한이 괴로운現世에서 永遠한生을갓는다는것도 考慮할問題일것이다 그런故로 우리前途에서 期待하고잇는 一定한『生의길』을完全無缺하게하거나 窮極의『死의길』에들어갈수잇는限에는 되는대로 現世를 떠날려고 無意識的으로 願望한다고否認할수업울것이다 勿論그程度에 多少의差異는잇을라정…即 換言하면日本某學者의말한것가티人間은獻死하는것이아니고 다만 不完全한生을 嫌惡하는것이다 果然人間은『不老長壽』를仰望하되『不死永生』은 決코希望치안을것이다 眞實로生을保存하는동안 即人生航路中에는 無數한 苦痛이重疊되고잇다 그러데 永遠히죽는일이업다면 이無限하고 多種한苦痛을 어찌解決할수잇을까?

休息과睡眠이업는吾人의日常生活에 나타나는 苦痛以上일것이다 그러면結局 人生은 一大重荷가되고야말것이아닌가? 우리들이死를 두려워 하는것은 우리에게 賦與된 一定한『生의 코ㅡ쓰』即 壽命을 完全無缺하게밟을수 업는것을 嫌惡하는것이겟다. 不然이 最後를 두려워할理由가 업슬것이다. 如斯한 意味에서生의目的은 死에잇고 死의目的은生에잇는것이 아닐까? 即 生의本能과 死의本能은同一하다.

다음에는 生物學的으로 觀察하여 보기로하자. 獨國의 有名한 生物學者『와이쓰맨』氏는生物體를 致死의 部分과 不死의部分을 區別하여 研究하엿다. 即 致死의部分이란 生殖細胞以外의 細胞다. 換言하면 狹義의『죰마』(肉體)로써 死에임으는것이고 이와反對로 生殖細胞는本質的으로 不死의細胞라하엿다 即 生殖細胞는 適當한 時期에그周圍에잇는 한『죰마』로부터分離獨立하여 따로 介體로써周圍에 新『죰마』를 作成하야서 一定期間 生을 保持하는 機能을 가진者다. 即『와이쓰맨』氏는 生物을 肉體的見地에서性的及 遺傳的要素에 不關하는死에이르는 한『죰마』를 認識하고 同時에 不死의部分으로 種族保存을爲한 生殖細胞를 論하엿다. 다음 이에相對하여 精神分析學者는 肉體內部에 潛在된勢力即本能을 生覺하야 두가지로分類하엿다 하나는 生의 更新을爲하야 不絕히 努力하고잇는 生의本能이다. 即『와이쓰맨』氏의形態學的으로 生覺한것에 對하야 本能的, 心理的으로 考察한것갓다. 內容은 同一하나.

그러므로 人間의 性衝動에 對하야 考察하야보자. 即 人生의性衝動에는 結合하는 傾向과 加虐被虐的傾向이잇는것은 說明을不要하는바이다. 性的交涉 或은戀愛에는 相對者를 攻擊하려하며(大槪는 男性)또 攻擊을밧고저(女性)願하는 傾向이엇다. 某夫人이 말하기를『性的交涉이라함은 情死의 境地라』고. 果然그럴듯싶다. 情死라함은 自他結合과 自他破壞와의 矛盾된 두가지 傾向이 完全하고 密接하게 融合된 現象이아닐까?

그러면 人間이란 生의本能을가진 反面에 또死의 本能을가지고잇다할까? 하여튼『멜리케ㅡㄹ』한 人間이라아니할수업다. (끗)

音樂演奏會의所感

演奏者와聽衆의態度를論함

延專 鄭上祿

『꽃은綠野』『꽃香氣가득찬東山』『산골작이의샘물』『숲속의꾀꼬리』이것은 決코노래의 題目이라던가 或은 노래의 한토막은 아니다. 시원한『오아시스』가튼맛을 차저보려는 봄의都市人들의『우드파아』의 한조각 또는 한폭의 그림이다. 人間은 模倣的이면서 創造的이여서 이自然의 風景或은 思想을무른녹는 和聲『코ㅡ드』우에맛업는 멜로듸로 그려낸다. 또어떤이는 이것을 흉내내기 爲해서 꾀꼴이 뻑국새 샘물 妖精或은 戀人이 된다. 그런데우리가 꾀꼴새 흉내를 내는데에잇서서나 또는 꾀꼴새소리를 듯는대잇서서 어떠한 態度가잇서야할것이다. 萬若꾀꼴새가 잘못울거나 또 꾀꼴새가 잘불드라도 가마귀가 울어서 꾀꼴새의꿈고 맑은소리를 깨트린다면참氣分나쁠것이다. 이러한 點에서이봄의 音樂會를 通하야 조금가해야할 態度여가지를 적어보려한다.

三月三日 林祥姬氏의 發表會를보건대 林氏와伴奏者金메리氏의態度는 매우 緊張味가잇서썩조와다. 그러나 聽衆의 態度에잇서서 한가지 遺憾된것은 二部에 어린 아이가 林氏의 노래를듣는中에 울기 때문에 고만聽衆들이 두어번 되엿다 勿論 音樂 동안에는 노래부르는 사람이나 듯는사람은 큰不快엿다 大體어린애는 音樂會에는 禁物이다 다음에는 四月엔에 柳英錫氏의 發表會와 五月五日 蔡鮮葉氏의 發表會가 엇엇는데 別로 그態度에 잇어서不快한點이 업엇고 듯는사람들의精神을 잘集中시켯다 좀더 詳細하게 評하고 싶으나 오히려여기서 꼿이고 이러한音樂 特히 聲樂發表會에 잇어서 一般的으로 잘못된 批判의 態度를말할라한다 우리가 大槪 音樂會는다가보는데 聽衆은 늘 보든사람 그사람이 그사람인것가타다 이만큼 音樂會를 드르러오는 그룹의 사람들은 빼노치안고 音樂會聽衆은 다가다 그래서 이사람들中에서 한어떠한共通點가 生긴다 그것은『아무개가 第一이다』『나는 아무개가 조화』이러한말들이다 勿論우리가 批評을 하지안으면 안되겟지만 아무개가 第一이니까 아무개가 조호니까 아무개는 좀것엇다고 아주남작하게 자기실혀하는 사람잇고 甚至於 他人에게까지 自己와 가든노릇을 하자고하는사람이 만타. 이것은 專혀音樂家의 缺點이란 實이다르것을 알지못하는 까닭이다。오로지 우리는 林氏면 林氏式의 發表回로 蔡氏의 蔡氏式의發을 보아야한다. 다음에는 京城音樂專門學校 音樂會인데 이音樂會는 李仁成氏 金載勳氏의 애쓰신 보람으로 열리게된만큼 또한 朝鮮에서 처음되는學校發表의 音樂會인만큼 感激이 컸던 點이엇섯다. 어느것이나푸로中 훌륭한것은 金載勳氏의作曲과 오래간만에 듯는 安基永氏의 技巧的인 노래와 新進쏘프라노 李觀玉孃의 有望한聲帶이엿다. 좀 잘햇드면 스크린의『마르타·예결든』를 듯는感을주엇슬것이다. 어전 만전이고 어音樂會에나온 演奏者의 態度를生覺해보자. 이날은 큰期待가운데에 參席한 사람이 만엇는데期待에 어그러진바되여 聽中을無聊하고 寒心케하엿다. 다음에는 업스니 엇단드리보자. 伴奏者인 金元福氏는 허기실은演奏를 엇지로 하는感이 잇서고어떠못에가서는 伴奏가 좀 뒤떠러저 드리가서 快感을 주지못햇다. 줘다金이 조치 못하신것가티 보엿다. 그러나 演奏가끈난後에 聽衆에 對하여 절도안하고 도러가는것은 좀 어떤가 生覺한다. 또 한분 桂貞植氏 어쁜도 音樂會聽衆에 역인다면 舞臺出入의 態度와 衣服을좀 조심햇스면한다. 아무리한번 나오는 伴奏일지라도 우리가 尊敬하는 분으로써 어러한 態度는 좀 섭섭하다 聽衆의態度는 李敦景氏의『뻐국의노래』하는中에 아이들에서 그곳는 뺑뻐이나짐씨마다 聽衆가운데 OEO를 비추어서 웃을수있따 좋우습이 나오드래도 듯는사람은 참어야할것이다. 다음에 伴奏해의 노래『숲에저서노래』의 伴奏가 재깃나기 前에 拍手를하는이가잇섯다. 언제나 우리는 演奏者나 歌手가 人事를 갓대에에 拍手를 해야겟다. 끗으로이러한 音樂會를 열때마다 當하는일은 拒絕이지 音樂家의根氣인지 이러한種類의 사람들이무슨일이 만흔지 작고 도라다니며 또한 高聲으로 演奏者에批評하야 聽衆의 注意를끌만아니라 不快하게하는것은 大端히 無味업는일이다. 마즈막으로 한마디하려는것은 新進音樂家들이 만이면自己네들을 맞하야 그러다거『떠뷔』하고잇는 때에 자칫하노기에예쓰신 音樂家諸氏를 無視하는일이 흔이잇다. 勿論예전사람보담新進이 더나아진사람이만치만이들 예전音樂家諸氏가잇고서 비로소 自己네들이 오날에 잇는것을 生覺하여야된다。이런 意味에 잇서서 우리新進들은 이들을 尊敬하고 이들의指導를 잘바더야할것이다. 이것도 또한 우리의 한 態度이를生覺한다.

★★★★★ 機械의世界 ★★★★★

東京製機工校 金甲鎭

機械가人間에게利用되기는 잠으로 옛날부터이엇스며 紀元前의 歷史를노코볼수가잇슬것이다 汽車 汽船 紡績機 印刷機가든實用의共同되어 盛大히利用하기始作한때는 不可一百年以來의 事實이라한다. 그러나 一百年前機械는 極히 幼稚한것이엿스나 人智의進步는刻刻 이것을 改善하여 現今의機械를 一百年前의것과 比較해보게되면 構造나材料가튼것에 多大한 差異를 볼수잇다.

機械라는것은製作을改善하는대따라 한편으로는 새로운機械가發明되여 거기에따라서 利用範圍도 점점 擴大하며 現今에는汽車 汽船 飛行機 自動車가든交通機關이나 時計 蓄音機其他家庭用品을 勿論하고 各各工場가든데서도 製造能率를 노피기爲하여 機械를만히 利用되는것을보아 人間生活과는 뗄라뗄수업는 關係를 가지고잇게되엿다.

그러면 누구를 勿論하고 원만케는 機械의智識이 必要할것이니 機械智識이 全然업는사람은生存上 不安을 느낄것이다. 現今 이世上에서 사라나갈라면 모르면 물라도 機械의 힘(力)을 빌지안흔 사람은 업을것이다. 交通은勿論 우리의 日常生活이 모두機械의힘을 빌지안는것이업다.

그러라면 機械는 大體로 엇떤것을 말하는가?

그種類는 無數하므로 一一히 드러 說明할수는 업스나한마듸로 말한다면 機械는 運動을 制限하야 自然의 에네르기의一定한 일(事)를 할수잇는裝置 即 抵抗性을가진 物體를組合시켜된것이니 運動하지 안는것은 機械라고 말할수는 업다 그러코보면 人體도 一個機械와가든構造物이라할수잇다. 胃라고하든機關이 口腔으로드러오는原料를粉碎하며 心臟이라는 機關이잇서 內部의血液을 循環한다 또그外에여러가지 機關이 잇서서 各其能率을 發揮함으로 우리몸을움직일수잇다.

萬一그 機關에故障을 이르킬때는 人間의 움직임은 게어르고느릴것은 事實이다.

이것을 고치는 醫師로 말할것가트면 一個의 機械技師라고 말할수잇다.

여기에따라 우리의 世界는機械의世界가 아닌가? 工業이 發達한 나라를보라 興隆하지 안흔가? 보라…天空을달리는 飛行機를 驀驀突進하는汽車를 自動車 壯麗 눈이핑 돌만한大建築이나 橋梁 어느든 現代의工業은 모두가 機械의힘으로되는것이다.

잠오는 넷재시간

全州農業校 孫周完

白墨을 놋고 敎壇의 先生은
熱을 내여 講義하시지만
나는 鉛筆을 놋고
졸음의 눈을 부빈다

三年의 教室에는 웨 여러케도
잠의精이 가득 들어왓는고?
一組의K는 유리창에 기대고
三組 B는 아주 다잠인양…

나의 精神은 가물가물 하고
先生의 굵다란 목소리는
꿈속에서 들은소리와 다름업다
五月의 잠의精은 體面도모른다

眼鏡우로 넘어보는 先生의 눈초리에
잠이 강동한 네눈에 마조첫다
[illegible]

나는 푸른 유리창을 내다본다
落葉松의 學校林에서
꾀꼬리소리가 들려온다
나의 귀에 새로운『리슴』을 보낸다.
꾀꼬리는 나를 부르고 잇다.

넷재시간의 조흔 機會를 타서
잠의精은 우리를 追擊한다.
休鐘은 웨 안울리는고?
잠의精은 小便을 무서워하는가?

여름비

中東學校 李晢

여름비는 제멋대로내린다 그러나 어떻에오는 初여름비는 아마못는어울것이다 지리한여름비 아무曲調업시내리는비는 그도

特徵의보람을찾는다고치면 차마한나절오는비에도 愛着이잇슬것이다 서글퍼달려 어꾸서울은 집웅어 비소리가宛然하나 서글비에比하면 아주그情趣가업다고치겟다 서꿀비! 첩새친진봉우에떠러지는소리는 밤初二更이라야들을수잇스나 그것이용마루끄테서 대로롱대로롱떠러지는 微妙한音拍은 예쩨마음어또거워지도록 感興이엇는것이다 오늘도이곳琉璃窓을 건너서 細雨도아닌지리한비는 꾸준이내린다 책상에 모로팔을베고안젓스니 무엇언지 凄凉히 똑똑거리는소리가난다 듯기에두문소리다 멀리서다드며질하는 소리도아니고 바로뒤때루머레 버린 종이쪼각에어따금 떠러지는 벼방울소리다 아마일부러것다노흔 쪼각이아니련만 그소리에서 새삼스러운感興어돗는다는것이다 마치바가지에물방울에 한가히떠러지는소리와가티 여상하게도 旋律어엇는소리다 서글가면 느즌여름 목적이매천 꼬지박에내려붓는비소리와갓다 어따금 창가로 실파러가 영영울고다니나 그소리는아모때 들어도 재긋 재긋 하다 서글전은 今年도 엽룰工場에사는 파리때문에 困難當할것어다 寄宿房에보처둔 파리紙도더욱着瑕의材料가대지만 작년여롭비오는날 寄宿房에서 그사람의 물든하모니카소리도 유달니귀에사모친다 얼굴이 검은ㅡ아마 運動家엿켓지? 그가힘잇게떼子를 뺏처가며 코롯쥣쥣거리며조고만손바닥에 갑지여서 뵈질안런 하모니카를 불엇슬때 어린놈들도아니엿쓴K君과 나와는굴러가며 우섯다 그러나눈만휘휘둘러가며 그는最後의 所願으로 그에게귀를기울이란듯이 誠心것불엇다 거문洋服에거문皮膚을가진그는 누가豫想햇슬까 그는其後二三個月못지나서 世上을떠나고말엇든것이다 그가왜죽엇는지 그것조차알지못하고 백여와은나엿다 그러나오늘의 이시갑보담칠신 더 먼저 나는그의죽엄을 알엇다 몰라서알엇것도아니엇스나 그가決코못엇시 죽엇다는것은 아니엿게에 나는그의 心像을다시그리게된다 비소리는 情다운反面쓰리기도하다 傳說보담 歷史이야기 보담 나는無名의 野人으로단그가 남기고간補話가 매우親하기쉽다 搭바에솔리는눈에 걸리는것은 桜竹梅 合植의花盆이다 겨울 러서물도자조못준 그들의 主人으로볼 나에게는 命名조차 어굴해보인다 그들의 主人은 참으로저하날에잇다 그리고 時時로물을주어서 그들의 宿命에補할뿐 나는 이방우에서 暫時그를봐주는 所謂假主人이라하겟다。

내일

延專 嚴達鎬

분아!
너는 울줄도 모르니?
가시엿 울어서
나를 참게 해다오。

분아!
차라리 이제야 할것을……
차라리 더퍼야 할것을……,
너는 너를 속이지나 안엇니?

울어라。
깃것 울어라。
내 몸속에 너무도 갓들언
눈물이 마를때까지。
너 찻는 마음이 그속에 잇다。」

분아!
너는 푸른하늘을 배워라。
비둘기 거리 맑은
『래일』이 울려고
이저녁 건ㅡ너로 하늘을 적셔올。

一九三八、五、밤 나무를에서
누나 를 에게

모닥불

延專 申辰淳

그리운 별밤

죽주는 봄꽃。
마른가지 가랑잎을
큰는소리 죽걱다。

묽게 떠오르는 나랑동산
내얼굴 엄마얼굴
한지 가득담긴 연지
차거운 味覺의 가을
하늘 하늘에 달리는 봄꽃、

거치른 엄마손에
安心스런 靈魂
모닥불 돌러안저
옛이야기 재미롭다。」

고마운 幻影이여
내 故鄕에도
어 밤에 모닥불이 붉으리라。

늙으신 어머니
등잔불 도두어
멀리온 나를 기달릴 이밤。

수고로운 마음
갈곳은 이곳뿐인것을。」

오 아름다운 불꼿
불빗 새여 흐르는
어머니의 등잔……。

青春의持續을 永遠히엇게되는 紅夢속에잠드는 桃源의秘藥

性慾學大家 日・獨醫學博士 羽太鋭治 先生發明

人生은六七十에도 性生活은可能하다

男子인以上 本能의慾望을完全히達치못하고女性과의사이에 無興味한交遊를 하는것처럼悲觀되는일은도업을것이다 生理醫學上으로보면人生은六七十에라도完全한性生活을누릴수잇다는것이 證明되어잇스므로 아직그러치안흘나이에 性生活을못하게되는것은반드시原因이잇다

情慾의缺乏不滿은 男子의一代痛恨事

貧富貴賤을勿論하고 女性을愛撫하라는心理와 天賦의愚具인 性行爲를실현할 사람이 그누가잇겟스리요 古代支那의秦始皇은 三千宮女와阿房宮에서 酒池肉林으로 一代를快遊햇다하나 우리는그와가티는 못할망정數人의女性을 征服할만한 性能力을 가지지안는대서야男子라고 행세할수잇겟스며 一代의痛恨事라고 아니할수업슬것이다

性慾學論

現代男女의아러둘問題

醫學博士 羽太鋭治

人生과性慾의意義

性慾은 男女兩性을 單位로하야發露되는 自然의本能으로서 人生과는 가장重大한關係가잇는神秘的存在이다 男子가 한번愛慕하는女性과사랑을맷즈랴고 決心을하게되면 自己의名譽와財産을 돌보지안흠은勿論이요 甚하면生命을거러서라도 그여히慾望을채우려는것이나 또는女子가 아릿다운態度로 어여뿌게보히려하며 가진아양과 모든愛嬌로어떠케해서라도 男子의視線에들라고 애를쓰는것이 그모도가性慾이시키는것은 두말할必要가업다 그러므로 自然히이러나는性慾을 正當한性行爲로滿足케하는것은 男女兩性間의結合을더욱더욱的然의一路로突入케하며圓滿한調和를이루게하야 人生을無上한幸福感에 陶醉케하는同時에 希望만흔一生으로서人生을有意義케하며 前途에는光明이빗칠것이다 오늘날 現代의文明人으로自任하는諸君들은 性慾이如何히人生의生活上度外視할것인것을 自覺하여서 써性慾問題를認識하야 考察研究하야서써性知識의眞相을 解得한후에完全無缺한性慾의行使로 靑春의快樂을 끈임업시 누려수기를바라며마지안노라

男子의一平生을 煩悶憂鬱케하는 性的障害諸症狀의解說

陰萎 — 適度의 用色과手淫으로 생기는症勢인바 生殖腺의機能萎縮이原因이며 勃起不完全한無力狀態로 射精을하게되고精慾의缺乏을느낀다

夢精 — 就眠時 意中의女와夢中에行事하야 射精이되는症狀인바 極度의神經衰弱이걸린때와 또는 思春期時에 惡習을過度히한것이 原因이다

遺精 — 晝間夜間을 分別치안코 正當한性行爲以外에陰莖이自然히勃起해지며不知中 精液이射出되는症勢로서 心身이極度로衰弱해진다

精傑漏 — 慢性淋疾로 攝護腺炎이된때나 그러치안흐면異性을對面만해도 心氣가異常흥분해저서 精液이自然漏出되야 體力과精力이極度로衰弱해진다

早漏 — 將次行事하랴거나 又行事中途에 精液의漏出로因하야 性의調和平均을 일는症狀인바 局部感覺神經이 病的銳敏狀態에빠저진것이다

性慾減退 — 아름다운女性을 對하야도 何等性的興奮을感치안흐며 無氣力한身體로勇氣가업서지고 顏面은蒼白해지며 萬事에厭症이생겨早老가된다

回春이되고 快樂의再得에感激하야 賞讚을마지안는禮狀의內容을읽으라!!!

第七夫人까지잇스되不足한感을느껴 滿洲國 張春傑

生은 滿洲國出生으로 第七夫人까지두고 부러운것이라고는조금도업시 지내는 累代의豪商이온바 財物만利用하면女性은 얼마라도交際할수 잇는것을 조흔機會로역이고 못女性들과 晝飮夜行으로 일을삼엇더니 요지음에와서는 아무리어여뿐女性을對하야도 마음과行動이 如一히되지안코 몸은떡거워수리처해서 限嘆으로지내옵든中 商品去來로일게된 日本人友人으로부터 回春藥인『キングス』가 第一이라는말을듯고 注文服用한것입니다 至今은女性과의 情事를前보다甚케하오나 好好的으로잘지내오며方今거느리고잇는第七夫人까지로서는 조不足한感이엇서더욱작정입니다

다러나려든妻가다시잇게됏다 (日本) 中村邦雄

男便은 엇더해도 寡婦와다름것이무엇이냐하며 그런것을아렷드면 누가 시집을왓겟느냐고하는 妻의不平을 드를적마다 後悔莫甚케하든 手淫의惡習으로因한 陰萎를 어서곳치라는 마음으로 病院약을 다써가며 限嘆하든것이 多幸히『キングス』로 그만 매력的으로되여 夫婦間의結合이完全하면 完全할수록 性의 滿足感에서 생기는이로 形言할수업는 幸福感과 서로의 사랑이 정정깁허가옵然히 自覺햇읍니다 小生夫婦가永遠히갈녀지라는危機의 一髮에서 救援바든것을 감사하 禮를올립니다、전과가티 十圓分을보내주십시요

인제는女性이잇는것이고마워젓다 (朝鮮) 表樂熙

性的不能者라는烙印을 등에질머지고 무엇보다 조와하는女性파는그만 당음햇고 지내게되니한때는기가막혀 女性을 너머조와하야 이러케된것은 生覺치안코 이世上에女子라는動物이 왜생겨나서 나를못살게하나하는일도랑도안혼 애꾸진女性만 원망한적도만엇습니다、그러든中『キングス』의藥効로因하야 그몸을烙印을 버서버리고 다시예전파다름업시지내오니 인제는 어世上에女性이잇는것이 고마워못견되겟읍니다 제멋대로 떠드는자라고너머책망은 마려주십시요、전번과가티 十圓分大瓶또보내주시기바라오며 貴堂藥의德澤으로조와하는것을 더조와하게된것을감사히 생각합니다

性慾을떠난一生은自殺보다甚해 (朝鮮) 辛學童

男子로서 性慾을떠난生活로一生을 보내라고 한다면 그것은自殺보다 더甚한노릇이라고 何人을勿論하고 肯定할줄노 斷然잇습니다 그만큼 人生에게絕對必要한 異性과의性生活을 小生이무엇로因하야、도모지滿足을 모르고지내오니이런恨心한일이 또잇겟습니까 그러다가貴堂의『キングス』五圓分을服用한것이 機會로回復시키고 近日에는 도로혀오래끄다는소리를 듯게되엇사오니감사하기짝이엄사오며 藥効의神速함에는 머리가숙으러집니다、小爲替로五圓十五錢先送하오니 中瓶急送해주시옵소서 繼續服用하려합니다

キング・オブ・キングス

뜻대로잘되고 김뿌게하는

性醫學上大發見品 徹底的快速回春藥

『キング、オブ、キングス』交尾期 가오면 性慾이狂暴해지며一日間에數百頭의암놈을受胎시키고 凝情狀態絕倫한 雄性動物로부터 性慾發生의根源인『性호르몬』만을特殊的科學方法으로抽出하야 그것을主成分으로하고 某種의化學藥品을配合하야 藥效를快速發揮케製劑化한것인바 人體에드러가면 男子의性器와不可分關係에잇는 生殖腺의諸機能을刺戟旺盛케하야 促情心을湧出케하며 性的神經을最興奮狀態로誘導하는 强烈한二重藥效가잇서服用한지不過幾分間이면 性器海綿體에一大充血作用을이르키어强大活潑해지는고로 아무리重症인性的欠陷에라도性行爲의目的을 完全達成케하는 徹底的快速回春劑이다

注文은直接本舖로

男子의가장重要한部分을 强케하야無上한興味로引導하는藥을 어디까지라도 誠意잇게取扱하기爲해도는 廉價販賣를目的하야 直接本舖에서만頒布하오니 돗대로되지안어限됴하시는분은 조곰도주저마시고振替、或은小爲替、또는代金引換便으로 注文하시면 至急秘密히送藥하오며 送料는四十七錢이오나 十五錢만보담해주십시요

藥價 小瓶(三〇粒) 二圓 中瓶(八〇粒) 五圓 大瓶(二〇〇粒) 十圓

東京市芝區新町十三ノ一番地

朝鮮代理店 合名會社 春泉堂 (振替東京七七一一番)

薰風の初夏に漲る颯爽の健康美

レートフード (레ㅡ도후ㅡ도)

一滴의効果
아버지의……面刀後에
어머니의……은근한化粧에
언니의……몸단장에
오빠의……出勤前에
동생의……通學登校에

黑色・白色의二色잇읍니다